

## “공단에서 먼저 가입하고, 국민과 함께 키운다”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IRP 확산 본격화

- 공단 임직원부터 자발적 가입...직접 경험하고 국민에게 알린다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공단에서 먼저 가입하고 국민과 함께 키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7월 출범한 국내 최초 공적 기금형 개인형 퇴직연금 ‘푸른씨앗 IRP’의 가입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공단은 푸른씨앗 IRP의 조기 정착과 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푸른씨앗 IRP 1인 1계좌 갖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 임직원이 먼저 자발적으로 가입해 제도를 직접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와 참여를 넓혀간다는 취지다.

푸른씨앗 IRP는 2026년 7월 1일 도입된 국내 최초의 공적 기금형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등 소득이 있는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제도로서의 신뢰성과 전담운용기관(OCIO)의 전문적인 자산운용, 연금 수령 중에도 이어지는 장기 자산관리, 복잡한 금융상품 선택 부담을 줄인 편의성이 강점이다.

공단은 이러한 장점을 국민에게 알리기에 앞서 임직원부터 제도를 이해하고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내부 캠페인을 시작했다. 25일 공단 본부에서 박종길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푸른씨앗 IRP 1인 1계좌 갖기 캠페인」을 열고 푸른씨앗 IRP의 취지와 가입 방법을 알렸다. 오는 9월까지 전국 지역본부와 공단병원 등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단 내부에서 시작된 캠페인은 대국민 홍보로 이어진다. 언론 인터뷰와 온라인 콘텐츠를 비롯해 푸른씨앗 4주년 기념행사, 지방자치단체 전광판,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푸른씨앗 IRP의 특징과 가입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푸른씨앗 IRP에는 7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853명이 가입했으며, 이 가운데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116명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푸른씨앗 IRP는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등 일하는 국민 누구나 공적 기금의 전문적인 자산운용 서비스를 활용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며, “공단 임직원부터 직접 경험하고 그 장점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푸른씨앗 IRP가 국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자리잡아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노후소득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가입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푸른씨앗과 푸른씨앗 IRP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가입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661-0075) 또는 푸른씨앗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     |    |                    |
|-------|-------------------|-----|----|--------------------|
| 담당 부서 | 퇴직연금국<br>푸른씨앗확산TF | 책임자 | 부장 | 김상엽 (052-704-7340) |
|       |                   | 담당자 | 팀장 | 박정우 (052-704-7393) |

